<일반화학 II>

동남아산 공세로 수출·내수 "이중고"

국내 염료업계의 수출이 주춤거리고 있다. 특히 중국·인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저가격 공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완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체 수입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93년 염료 수출은 92년대비 0.8% 소폭 증가한 1억4609만달러를 나타냈으나 94년 3/4분기까지 수출은 1억835만달러로 2.3% 감소했다.
안료도 93년 수출이 11.1% 증가했으나 94년은 8017만6525달러로 13.1% 감소했다.또 94년 3/4분기는 2/4분기대비 9.6% 감소했으며 4/4분기도 계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간체 수출은 93년 1.4% 증가했고, 94년 3/4분기까지는 2.0% 증가한 4206만5688달러로 나타나 연말에는 2.0% 늘어난 5606만달러 정도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염료, 저가·환경규제 등 어려움산재

염료업계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으나 동남아국가의 저가격 공세에 대응키 위한 가격인상이 어려운 실정이며, 환경규제 등의 이유로 수출부진마저 겪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료중간체의 기초원료인 벤젠계·나프탈렌계 등의 가격은 최근 50 100%까지 상승했고, 세계적인 염료 공급과잉과 선진기업들의 가격인하 정책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맥을 못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시장에서도 중국·인디아 등의 저가염료에 밀려 가격경쟁력이 저하된 상태이고, 내수시장도 저가염료의 수입급증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표1】 염안료 및 중간체 생산실적

(단위 : M/T)

구 분	염 료	안 료	염료중간체	안료중간체
1993.12월	3,583	4,680	408	1,066
1994.1월	3,434	4,423	397	1,061
2월	3,329	4,713	301	919
3월	4,392	5,721	406	1,137
4월	3,697	5,362	381	1,209
5월	3,710	4,963	452	1,121
6월	3,890	3,887	415	1,214
7월	3,619	3,869	377	953
8월	3,608	3,252	254	822
9월	3,893	4,479	327	1,190

【표2】 염안료 및 중간체 수출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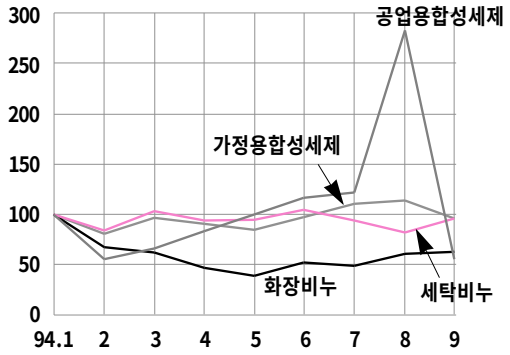
(단위 : 1000달러)

구 분	염 료	안 료	중간체
1991	131,367	74,231	50,624
1992	144,910	84,016	54,202
1993	146,093	93,320	54,938
19941/4	32,941	26,906	13,227
2/4	38,089	22,452	15,668
3/4	37,321	20,307	13,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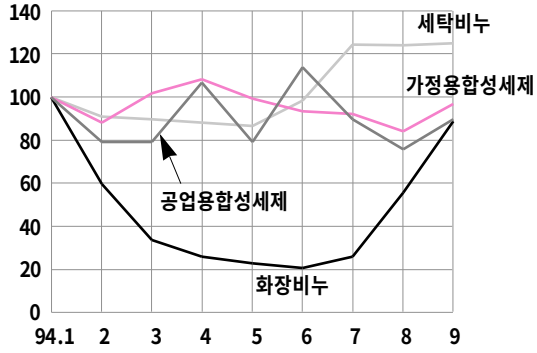
국내 염료 생산은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94년 3/4분기까지의 총생산량이 93년 동기대비 5.2% 증가한 3만3262톤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과잉·수출부진·내수판매 부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94년9월기준 염료 생산은 8월대비 7.9% 증가한 3893톤, 안료는 4479톤 37.7%, 염료중간체는 327톤 28.7%, 안료중간체는 1190톤 44.8%로 각각 큰폭으로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최근 호황세를 보이고 있는 분산염료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해외 다국적기업의 가격인하로 판매가격 조정과 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EU지역이 벤지딘계를 이용한 직접염료와 산성염료를 완전 수입금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염료기업의 수출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황화염료는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황화염료는 섬유소염색과 레이온사의 염색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94년들어 레이온사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세계시장은 미국기업들의 자동화에 따른 비용절감, 중국의 저임금을 통한 저가격속에서 정체감을 보이고 있다.
진주안료는 채도와 은폐력이 뛰어나 소량으로도 고급스러운 광택효과를 볼 수 있어 고부가 제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진주안료는 93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했으나 94년부터 세모화학이 내수공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염료는 최근 호황세를 보이고 있는 폴리에스터섬유의 수출증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동남아지역에서 일본산이 강세를 유지했으나 엔고가 지속되면서 국내 제품이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하게 작용, 시장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분산염료시장은 중견규모의 기업들이 시장을 석권해왔으나 최근 경인양행 · 이화산업 · 태흥산업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들도 서서히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유산업이 당분간 계속 호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분산염료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1】 비누 · 세제 수급지수 (1994.1=100)



【그림2】 비누 · 세제 판매지수 (1994.1=100)



염료의 시장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생산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화산업은 총 5억원을 투자, 엑셀염료를 개발했고, 반응성 액체염료인 리파졸블랙 BFL · BXL · GSL 등도 상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흥산업은 산성염료의 고급화를 추진, 밀링타입에 성공했고, 그래뉼타입 분산염료 3원색의 개발에도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럭키도 5억원을 투자해 루마크론 블랙 EX-RSN을 개발했고, 분산염료 3원색을 모두 개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대체를 위한 리카피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어 자체개발에 의한 상품화가 아쉬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장비누 20% 전후의 성장세

국내 비누 · 세제의 94년 월별동향을 보면, 상반기 저조한 실적에 비해 하반기에 들어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탁비누 생산은 7 8월 8000톤대를 유지했으나 9월에는 다시 7000톤대로 떨어졌다.
화장비누는 8월부터 20% 전후의 생산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가을 성수기를 맞이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정용세제는 8월 2만톤대가 무너졌으나 9월들어 다시 8월대비 17.2% 증가한 2만3353톤을 기록했다.
공업용세제는 고온에 따라 물에 용해되는 점 등의 원인으로 8월은 7월대비 131.8% 대폭 증가했으나 9월은 다시 10톤의 소량 생산에 그쳤다.

판매부분을 보면, 세탁비누는 7월부터 7000톤대로 올라서면서 9월까지 꾸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9월은 8월대비 0.6% 소폭 증가한 7360톤을 나타냈다.
화장비누 판매는 7월 1000톤대를 기록하면서 8월은 113.5% 대폭 증가한 2216톤, 9월은 58.6% 증가한 3515톤으로 3/4분기에 접어들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급증하고 있는 수입품과 외국산 고급 화장비누 선호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국내제품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화장비누의 수출이 감소하자 신제품 개발과 고급화를 유도한 국내 기업들의 신판매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94년초부터 뛰기 시작한 비누·세제 원료인 글리세린 가격이 3/4분기로 접어들면서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94년 글리세린 가격은 93년대비 70%까지 상승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으나 7월들어 럭키 등 국내 기업들의 가격동결 선언 등으로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글리세린 파동은 미국·말레이지아의 화재사건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동안 누적되어온 글리세린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큰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세탁비누시장의 침체와 지방산의 수입증가로 글리세린 생산량이 평년수준보다 30% 이상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12/1>